

“공동사회의 의의 - 발생과 본질”

작가 나 성 욱

본래 인간은 혼자 살수 없기 때문에 언 제나 다른 사람과 서로 협력하여 공동생활 을 해 나가는 이른바 사회적 존재(社會的 存在 :social being)이다. 즉 목적이나 환경을 의식함이 없이 본능적으로 서로 도우며 사 는 생활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과 일정한 사회관계(社會關係 :social relationships)를 맺 으면서 살아가게 된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공동생활을 하게 되 는 까닭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군거(群居)의 본능(本能 : gregarious instinct) 때문인지 아니면 공동생활을 함으 로써 얻어지는 보다 안정적이고 서로 의지 하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생활의 도움과 이익 때문인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견해가 구구히 피력되어 왔다.

공동생활이 인간의 생성과 더불어 결정 지어져 그것이 숙명처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과 의지에 의

해서 이룩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이다. 한 인간이 한 가족의 성원(成員)이 된다거나 또는 어느 촌락이나 국가의 구성 원이 되는 경우는 대체로 전자의 예이며, 인간이 어느 단체, 정당 혹은 회사 등의 성 원으로 참가하는 경우는 바로 후자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대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 니고 남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더불어 살아 가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생활을 하 게 되는 바탕중의 하나가 곧 일정한 지역(地域)이며, 따라서 이것이 공동생활의 전 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지연사회(地緣社會 :territorial society), 또는 지역사회(地域社會 :local community)가 바로 그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하나 공동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이 곧 혈연관계(血緣關係 : kinship)이다. 이같이 자연과 혈연이 동일할 때 거기에 바탕 되는 공동사회는 내적으로 강한 유대(紐

帶:tie)를 가지면서 생활과 감정이 동질화(同質化)된다. 예컨대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맥이버(Maclver)는 공동사회의 특징을 지역성(locality)과 공동체감정(community sentiment)에 두고 있다.

생활이 같고 감정이 같고 전통과 문화가 동질일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서로의 협력과 협동이 이루어지며, 그 인간관계는 상호의존적인 것이 된다는 것이다. 역시 미국의 사회학자 페어차일드(H.P.Fairchild)는 공동사회의 특징을 자급자족(自給自足: self-sufficiency)의 측면에서 관찰함으로써 공동사회가 갖는 고질적인 폐쇄성(閉鎖性)을 들고 있다.

즉 공동사회에서는 개인보다 집단이나 전체가 우선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감정과 태도의 총체(totality of feelings and attitudes)라고 정의하고 있다. 물론 이 밖에도 공동사회의 특징이 다만 지연·혈연·생활·감정·태도의 동질이라는 객관적구조(客觀的構造: objective structures)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인간 개개인의 <공동사회의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自覺)과 이와 함께 생기는 권리와 의무의 인식>에 따른다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긴즈버그(M.Ginsberg)는 <규칙(規則: rules)의 공동체계>라 보았고, 오그번(F.Ogburn)이나 님코프(M.F.Nimkoff)는 <제도(institutions)의 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학에서 공동사회에 대한 개념과 특성과 그 구조와 기능 등을 가장 명료하게 밝힌 사람은 다른 아닌 독일의 사회학자 퇴니에스(F.Toennies: 1855 ~1936)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공동사회를 퇴니에스의 게마인사프트(Gemeinschaft)라는 용어로 대치하여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다. 독일의 대부분의 사회학자들은 사회의 본질을 의지(意志: Wille) 또는 정신(Geist)으로 보고 있다. 그 점에서 퇴니에스 자신도 공동사회인 게마인사프트를 인간의 의지의 긍정적 관계라고 설파하였다.

그것은 또한 실제적이고 유기적인 생명체이다.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인간 의지의 통일체로서의 게마인사프트는 혈연과 지연 그리고 심연(心緣)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혈연관계에 의한 게마인사프트의 전형은 바로 부자(父子)·부부·형제·친척 등을 모체로 하는 가족(家族: Familie)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연관계에 의한 공동사회는 토지를 매개로하는 공동생활이며, 근린관계(近隣關係: neighborhood)가 일반적 성격을 형성하고 있는 촌락에서 그 전형(典型)을 찾아볼 수 있다.

세 번째의 심연에 의한 공동사회는 신성시되는 것에 대한 공동의 관여이며, 서로의 이해와 우정이 그 근본이 되는 일종의 정신적 공동체이다. 일반적으로 게마인사프트

적(gemeinschaftlich) 생활은 상호부조 또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이며, 공동의 소유와 향락(享樂 :enjoyment)이다.

공동생활의 성원은 주거와 경지(耕地)혈연과 감정에 의해 중추적(中樞的)으로 구축되고 그 관계는 사뭇 지속적이다. 모든 공동생활의 질서와 윤리는 그 관계가 지속적이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그리고 또한 고정적이다. 공동사회 내부의 지배와 복종의 관계를 규제하는 권력은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출생(出生)·신분(身分)·성(性) 등에 의해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현대사회처럼 개인의 능력·의지·노력·기술 등에 의해 지배와 복종과 같은 인간의 상하관계(上下關係)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사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좋은 집안에서 남자(子)로 태어나면, 더구나 장남 적자(嫡子)로 태어나면 그에 따르는 모든 권력과 영예는 자동적이고 세습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상하의 신분관계가 세습적이고 동시에 고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성원은 주어진 여건이나 상황을 거의 숙명적인 것으로 체념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된다. 따라서 거기에는 하등의 변화도 어떤 발전도 없으며 사회자체가 자연히 침체되게 마련이다. 이러한 공동사회의 전형을 봉건사회(封建社會)·농촌사회·미개발사회에서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서로의 이해와 협동적인 정서(情緒)를 바탕으로하는 계대인샤프트적인 공동사회는 의술과 기술의 발달, 생산량의 증대, 교통편의의 증가, 인구의 증가, 지혜의 발달 등으로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그 위에 이기주의와 허언(虛言), 기교(技巧)와 화폐욕(貨幣慾) 그리고 또 향락욕(享樂慾)과 명예욕 등이 전통적인 공동사회의 붕괴를 재촉한 것도 얼연한 사실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이들 공동체의 붕괴는 상업의 외적 지배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겠다. 즉 자본주의의 대두와 도시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공동사회인 계대인샤프트는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이익사회, 즉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 서서히 또는 급속히 이행해 가는 것이다.

이를 사상적으로 고찰해 볼 때, 문예부흥(文藝復興 :the Renaissance)을 계기로 한 개성의 자각과 인간성의 해방은 계몽주의 사상과 경험적인 과학과 기술의 발달을 이룩하였고, 그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각성을 고취시켰다. 또한 이러한 내면적 자각과 외부로부터의 상업의 지배는 서로 상승작용(相乘作用)을 하면서 공동사회를 여지없이 붕괴시켰던 것이다.

문예부흥은 14~16세기 사이에 유럽에서 중세 그리스도교의 속박에서 벗어나 개인의 해방, 인간 중심의 학문과 예술이 크게 일어났던 사상계의 대혁명이라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학문 예술의 부흥과 더불어 학술·정치·종교 방면에도 새로운 풍조를 받아 들여 근대 문화의 기초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공동 사회적인 규제를 스스로 탈피한 인간은 합리적인 이익사회에 살면서도 그 사회가 갖는 무절제한 경쟁과 자유방임적인 질서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한편으로는 공동사회적 질서로서의 회귀(回歸)를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계획사회(計劃社會)에로의 재조직을 시도하고 있는 측면도 엿보인다. 하지만 여하튼간에 공동사회가 모든 사회집단의 하나의 기초집단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이 분명한 것이다.

운명과 생활을 같이하는 조직체가 공동체인데, 여기서는 인간의 공동생활이 행하여지고 있는 일정한 지역을 말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커뮤니티(communit)의 역어(譯語)에 해당시켰으나, 그 경우의 공동체는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에 대응하는 개념(概念)으로서 인간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지역을 지칭한다. 인간의 사회적 제관계(社會的諸關係)의 모든 것을 그 내부(內部)에서 찾아볼 수 있는 지역사회를 가리킨다.

공동체의 기초는 지역성과 공동체감정(共同體感情)의 두 가지로 압축해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체라는 용

어는 경제사적(經濟史的) 개념으로서 쓸 때가 오히려 더 많으며, 자본제생산(資本制生産)에 선행하는 형태로서만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에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이용이나 구성원의 개인적 자유에 대하여 가해지는 강력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공동체규제(共同體規制: Gemeindefzwang)라 칭한다.

이와 관련하여《공동사회(共同社會)와 이익사회(利益社會)》(Gemeinschaft und Gesellschaft)는 독일사람 퇴니에스의 저서로 1887년에 간행되었다. 인간의 의사(意思)에는 본질의사(本質意思: Wesenwille)와 선택의사(選擇意思: Kuerwille)의 두 종류가 있으며, 그에 대응하여 사회는 공동사회와 이익사회의 두 유형(類型)으로 자연히 구별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이 2분법(二分法) 외에 생명발전의 3단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식물적·동물적·인간적 또는 유기적·동물적·정신적의 3분법을 취하고 공동사회와 이익사회가 각기 이 3단계로 분류되어 모두 여섯 개의 범주(範疇: Kategorie)가 생긴다고 하였다. 퇴니에스는 공동사회에서 이익사회로 옮겨가는 것을 당연한 역사의 발전법칙으로 보고 이익사회가 더 나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공동사회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적(實際的)이고 유기적 생활체로 감

정·충동·욕망의 자연적인 통일인 본질의 사(本質意思)에 그 터전을 두는 사회에서 인간은 원래 태어났다. 이러한 사회는 가족이나 촌락처럼 혈연·지역·정신의 세 가지가 연결되어 공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회의 낮은 단계에서는 지배적(支配的)인 형태(型態)로서 협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곧 상호간의 애착 또는 공동이해관계로 맺어진 사회적 관계인 것이다. 여하튼 동일

한 목적을 가졌거나 동일한 환경에 놓여있는 여러 사람이 일정한 기간 또는 무기간(無期間)으로 한데 모여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 생활인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인간은 본래 개미(ants)나 벌(bees)같이 목적이나 환경을 의식(意識)함이 없이 생태적(生來的)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서로 도우며 사는데 길들여져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